

원호의 금강삼매론

깊은밤 어둠을 가르는 침묵
한줌의 등불 아래 앉아
원호는 묻는다.
무엇이 진실이며
어디에 번뇌가 깃드는가

수많은 글자가 흐르는 바다처럼
검은떡 밧 종이가마다
진리에 물결이 속삭인다.
고요한 마음을 비추는 달빛아래
한 자 한 자 쌓아올린 부처의 말씀

부서진 두 개골처럼
세상 이치도 붕괴되고
텅 빈 마음엔
금강석 같은 깨달음 남아
한없는 자비로 번져간다.

나는 오늘
금강 삼매에 기대어
텅 빈 총만으로 세상에
연꽃 한 송이 피운다.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

금강삼매경론 <원효>

작품 설명

금강산매란 부처의 마음에서 나오고, 모든 空(빌 공)에 머물면서, 한 생각에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란 뜻으로 원효의 발자취와 번뇌, 깨달음은 마음(일체유심조)에서 나온다는 뜻이다.

반야심경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처럼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자.
즉 불교의 진리이고 수행에 정진하자.

그것이 바로 자비이다.